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사무실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음 8월 6일) 제 18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부영 임대아파트 보증금 2년새 가구당 1000만원 ↑

### REPORT 부영 임대료 인상 논란

과도한 인상 주민불만 팽배 서민들 목 죄 지역사회 지탄  
한 주민 “재계약 포기하고 다른 곳 이시간 입주자 속출”  
전주시 “조정권고안 거부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것”

매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입주자들의 강한 불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년동안 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이 가구당 1,000만원이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주시에 따르면 2014년 10월 전주시 덕진구 하가지구에 들어선 이 아파트는 26평(전용 기준·59.9㎡) 545가구와 34평(84.9㎡) 315가구 등 모두 860가구에 달한다.

26평의 경우 2014년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이 9,200만원, 월 임대료는 30만원이었다. 하지만 부영측이 2015년과 2016년 5%씩을 인상하면서 임대보증금은 1억1,430만원, 월 임대료는 33만1,000원으로 올랐다.

34평 역시 임대보증금은 2014년 1억2,500만원에서 2016년 1억3,780만원으로, 월 임대료는 40만원에서 44만1,000원으로 폭등했다. 이같은 높은 임대료 탓에 2015년

에는 860가구 중 776가구만 재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현재는 523가구가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서민을 위해 지어진 임대아파트가 결국 서민의 목을 죄면서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전북개발공사와 LH 같은 공공 임대아파트들이 2년마다 3.3~4.9%를 인상하는 것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인상을”이라며 반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43)은 “서민 대상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익만 쫓기는 것은 황포나 마찬가지로”라며 “2년간 10%나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재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시간 입주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은 그동안 임대료를 법률에서 규정한 상한선인 5%씩 매년 인상에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됐다. 전주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부영 측에 임대료를 2.6% 이

내로 인하할 것을 두 차례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주거지 물가지수(1.9%)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를 고려해 산정됐다. 하지만 부영 측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 6월 부영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 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부영그룹 본태열 고문과 이기홍 사장은 지난 12일 전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이 하가지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2% 초반대로 줄이고 신속한 하자보수, 복리(편의)시설 확충 등을 강력 요청했다.

면담 이틀 뒤인 지난 14일 부영측은 “법적상한선(5%)과 물가상승률·주변시세 등의 인상 요인을 떠나서 전주시와 임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임대료 인상률을 이전의 5%에서 3.8%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부영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수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임차대표회의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대료 인상을 발표했다”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고수할 경우 조정권고하고 만일 수용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생생마을 한가위 장터 개장

지난 22일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2017 생생마을 한가위 장터 개장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판매부스를 돌며 마을협동조합 시민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다. 한편, 생생마을 한가위 장터는 2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2면>

## 문화특별시 전주시 즐기는 풍성한 한가위

### ▶ 시, 추석 문화체험프로그램 마련

한옥마을 등 문화시설 개방  
전통문화공연 등 행사 다채  
추석 당일, 경기전 문 열어

민족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전주시 한옥마을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펼쳐지고, 경기전과 아진박물관은 추석 당일에도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주시는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역대 최장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10일간 전주한옥마을과 17개 문화시설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뜻깊은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주를 찾는 귀성객들에게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자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전주만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공연과 문화장터, 이벤트 등을 준비했다.

먼저, 30일과 10월 5일~8일에는 전주시 대표 전통문화공연인 전주마당창극 ‘천하행인이 눈을 뜬다’ 공연이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펼쳐지

고, 추석당일을 포함 30일과 10월 4일~8일에는 전주기점놀이와 실버취타대가 함께하는 전통연희 전통길놀이, 남천교 청연부에서 경기전까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 귀성객에게 더욱 풍성한 추석연휴를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에서는 시민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30일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을 진행되고, 경기전 부속건물에서는 왕실의상체험과 왕실 제례체험, 경기전 문양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가마체험, 전통 민속놀이, 디딜방아 체험 등이 운영된다. 경기전과 아진박물관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번 추석 연휴기간 휴무 없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주지역 17개 주요 문화시설에서도 귀성객과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추석맞이 행사가 진행된다.

전통문화연수원과 소리문화관, 전주공예품전시관 등에서는 국경체험과 제기차기와 투호, 나무피리 만들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고, 전주한벽문화관에서는 한가위 퓨전국악공연과 난타 공연이 진행된다. 또, 전통술박물관은 전통주 시음행사와 모주 거르기, 소주 내리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최명희문학관에서는 ‘혼불’ 작 품속의 한가위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과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 ‘전주(發)발’, ‘엽서 한 장’ 등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추억과 사랑을 담아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채문화관은 단선, 점선 부채만들기 체험프로그램과 선자장 부채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완판본문화관에서는 목판화 한지 엮서 체험과 나만의 옛 책 만들기 등 과거 인쇄와 정을 경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문객들이 한지에 사진을 출력해 벽걸이를 제작하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족족자, 한지꽃등 만들기, 색동한지 청사초롱 만들기 등 선 물잔치 7선 체험한마당프로그램과 웃 좋은날, 운 좋은날 ‘웃집밥’ 행사 등 한가위도 즐기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이밖에, 전주역사박물관은 한복을 입고 방문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즉석 사진을 선물하고 추석특선영화 상영과 굴렁쇠, 투호놀이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체험과 다문화 가족을 위한 팸리핀 전통놀이인 ‘송까’와 ‘티너링’도 즐길 수 있다. /김민근 기자

## 전주시보건소, 올 국가결핵관리 최우수 선정

### 환자 조기발견 기여 높은 점수

전주시보건소가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가장 잘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2일 열린 ‘2017년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 관리사업 평가대회’에서 국가결핵 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질병관리본부장상 표창을 수상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등 공공기관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보건교육과 상담, 복약관리 및 독려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보건소는 등록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 100%를 달성하고 보건교육 및 상담, 복약확인 등 철저한 환자 관리에 힘쓴 점을 인정 받았다.

또 결핵환자의 진료를 지원하고, 결핵환자 가족에 대한 결핵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 성공률 향상과 환자 조기 발견에 기여한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민근 기자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도시세요

의회 고창군의회